

천혜 협곡에 그려진 佛畵의 파노라마



신성민 기자의 중국 실크로드 불교 유적 순례기

④ 안서 유림굴

허허벌판에 차를 세워 내렸다. 조금을 걸어가니 날카로운 협곡이 눈에 들어온다. 깊게 패어진 골짜기 사이로 기암괴석의 절벽이 펼쳐진다. 구석구석 조그마하게 석굴들의 존재가 보인다. 협곡의 이름은 '만불협(萬佛峽)'. 만불이 존재하는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곳에 '유림굴(榆林窟)'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림굴은 감숙성 안서현에서 서남쪽으로 7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동한의 막고굴, 서천불동과 함께 실크로드 불교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석굴로 평가받고 있다.

하서주랑(河西走廊)의 서부에 있는 유림굴은 그 위치적으로도 중요하다. 하서주랑이란 동쪽 오령(烏嶺)에서 시작해 서쪽 옥문관(玉門關)에 이르는 약 900km 구간의 좁고 긴 평지다. 서한(西漢)시기 장건(張騫)이 서역을 개척한 이후 하서주랑은 실크로드 상에서 중원과 서역을 연결하는 육로 교통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실크로드 길목에 있는 유림굴도 구법의 한 루트였을 것으로 보인다.

맥적산과 병령사도 그랬듯이 중국의 석굴은 강이나 하천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절벽 위의 석굴에서 수행과 신앙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원(水源)은 필수였기 때문이다. 안서의 유림굴도 기린산맥의 만년설이 녹아 내려 생성된 유림하천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됐다.

언제부터 이 협곡에 석굴들이 조성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현존하는 석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당나라 시기 조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뒤를 이어 송·위구르·서하·원 시기까지 중수와 조성이 반복됐다. 이후 청나라 시기에는 보수작업이 이뤄졌는데 이 때문에 많은 소조불상의 원형이 훼손됐다.

유림굴은 동서의 양 협곡 사이의 절벽에 조성돼 있다. 동쪽 절벽에는 30여개의 굴이 서쪽 절벽에는 11개, 모두 40여 개의 굴이 들어 있다. 석굴에는 소조 불상 100여 구와 불화가 5,650㎡에 걸쳐 그려져 있다. 현재는 동쪽 절벽의 감실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단이 찾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운영됐다. 3층에 걸친 감실 앞에 콘크리트로 계단과 난간을 만들고 출입문을 설치해 관광객이 임의대로 보지 못하도록 했다.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관람 시에만 문을 열어준다. 또한 입구의 벽면이 무른 것과 달리 굴의 외벽 표면에 경화 처리해 훼손을 막고 있다. 이런 유적 보존과 운영 방식은 동황과 투르판의 석굴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앞서 답사한 맥적산과 병령사 석굴은 불상 중심이었다면 유림굴은 불화를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 청나라 시기 대규모 보수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굴의 소조불상들이 대부분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다보니 형상이 둔중하고 색채 역시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유림굴에 있는 불교 예술의 주요 발전 시기를 티베트 점령기, 조씨 귀의군 정권시

기 등을 꼽는다. 특히 조씨 일가의 정권 시기에 유림굴은 집중적으로 발전했다.

이에 대해 최태만 서울산업대 조형예술과 교수는 '유림 제25굴의 도상 고찰'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티베트로부터 이 지역을 수복해 당의 조정에 바친 장의조에 이어 조씨 일가가 이 지역을 지배하던 시기에 굴착되거나 증수한 굴이 유림굴에 28개가 있다. 막고굴까지 합치면 70여 개에 이른다"면서 "이런 까닭에 조씨 귀의군 정권하에 특별히 불교문화가 융성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조씨 가문은 별도의 화원(畵院)을 뒤 유림굴과 막고굴 벽화는 물론 비단 그림, 판화, 사경 등을 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唐부터 淸까지 꾸준히 조성돼

曹氏 귀의군 시기에 집중 발전

동서 절벽에 40여 석굴 존재

조성 양식, 동황 천불동과 유사

5000여㎡ 걸쳐 펼쳐진 불화들

조성 시기 정치·문화 사료로 중요

수월관음 등 미적 가치도 높아

당대(唐代) 장의조부터 조씨 귀의군 시기에 집중적인 숭불 정책은 동황 등 지역에 불교문화의 융성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유림굴과 동황 막고굴은 그 조성 형식이 유사하다.

석굴 형식으로 보면 △중심탑주형(中心塔柱形, 주실의 중앙에 방형의 탑주가 있는 형식) △중심불단형(中心佛壇形, 주실을 평면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파들여간 석굴 형식) △대상형(大像形, 평면 또는 타원형의 굴이 주되다. 이는 유림과 동황 막고굴에 모두 나타나는 것들이다.

유림굴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은 11굴이다. 청대에 최종적으로 개착한 굴로 서하 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18나한상의 생동감이 인상적이다.

11굴 옆 12굴은 5대 10국시기 조성됐지만 유림굴 중 벽화가 가장 보존이 잘돼 있다고 평가 받는다. 천장에는 천불을 묘사한 불화가 있는 데 막고굴의 천불 불화보다 색채의 탈락이 훨씬 덜하다. 굴 남쪽 벽 아랫부분을 보면 가족들이 나들이를 하는 '출행도(出行圖)'가 있다. 이는 200년 동안 이 지역 지배했던 모용(慕容) 가문의 모습으로 알려졌다.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들어갈 수 없었고 표지판 사



안서 유림굴 25굴 남측에 그려진 '관무량수경변상도'. 티베트 점령당시 그려진 것으로 원형 상태가 잘 보존돼 있는 작품이다.



3굴에 그려진 보현보살도. 서하시기의 작품이다.



안서 유림굴 전경. 협곡의 동서 절벽에 40여 개의 석굴이 있다.



2굴 북측에 그려진 수월관음도. 그림체가 매우 유려하다.

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유명 석굴은 25굴과 2굴이다.

특히 25굴은 티베트 점령기 당시 벽화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보존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25굴 주실 남벽에는 '관무량수경변상도'가 북벽에는 '미륵경변상도', 동벽의 '팔대보살만다라경변상' 등의 도상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당시 예술 수준과 건축, 의복, 음악, 풍속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호굴은 서하 시기에 조성됐다. 이곳에는 수월관음이 그려져 있다. 남측과 북측에는 수월관음이 그려져 있다. 사진으로 보여준 북측 수월관음은 비스듬히 기대어 조각감을 보고 있다. 이 그림들은 당나라 때 화가 주방(周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으로 봤지만 '고려 수월관음도의 원형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체가 매우 유려하다.

유림굴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은 6굴이었다. 굴 입구부터 화엄법계(華嚴法界)란 현판이 걸려있었다. 이곳에는 유림굴에서 가장 큰 미륵대불이 있었다. 높이만 24.7m에 이른다. 동황한 유근자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6굴은 규모가 커서 예불굴로도 이용됐고, 그만큼 훼손이 많았다.

불상의 조성 시기는 당대(唐代)이다. 이 시대 미륵불은 축천후후가 많이 조성됐는데 본인이 황제가 되기 위한 발원을 많이 담았다고 한다. 또한 불상이 여성상을 강하게 가지기 시작한 것도 축천후후 시기부

타라고 유 연구원은 설명했다.

6굴에서 잠시 나왔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단 스님들이 '미륵존불'을 영송하고 있다. 미륵 부처는 미래에 오실 부처이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중생은 미륵의 도래를 기원한다. 이는 온 세상이 불교정토가 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다. 협준한 구법의 길에 올랐던 구법승들도 불교정토를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걸어 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딛는 오늘날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

motp79@hyunbul.com

이 기사는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의 협찬으로 게재 예정입니다.

관음태교는 유대인 태교법 등 세계의 어떠한 태교법과도 차원이 다른 영혼체 중심 영재태교법

'관음태교인재 10만명 양성운동'을 제안한다 - 3,40년 후면 초일류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

세계를 제패하는 유대인

태교(胎敎)가 출산 후의 평생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 70억 인구의 0.2% 정도에 불과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전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약 23%(2001~2009년)를 차지하고, 미국의 정치·경제·문화 예술계를 주름잡고 있는 비결이 유대인의 태교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낫다 임신법

① 생리 첫 날부터 5일간, 생리가 끝난 후 7일간 부부관계를 피합니다. 즉, 생리 시작일로부터 12일째 밤이 되면 '미크바'라는 육조에서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부부관계를 가집니다. 이 기간은 대개 배란일 하루나 이틀전 정도로 임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낫다 임신법은 건강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이를 통해서 어머니도 지혜와 바른 정신을 함양할 수 있고 태아에게도 유대인의 정서와 정신을 기르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교를 한 가정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여기며 때때로(유대교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신경 쓴다고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관음태교의 우수성

그러나 아무리 유대인 태교법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불교 교구의 태교법인 관음태교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유대인 태교법은 근본적으로 영혼체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며 행복과 불행의 원인인 업(業)과 과보에 대한 통찰이 없어 금생 한 생을 잘 살기 위한 육체 중심의 태교교육에 그칩니다. 그래서 출생 후의 지능 및 재능개발에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관음태교는 태아의 본체인 영혼체의 존재와 업과 과보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가기 위한 영혼체 중심의, 심성 정화를 바탕으로 하는 전인적인 태교법입니다. 또 유대인 태교법은 부모 중심의 자녀 태교로서 훌륭한 배우자나 태아영혼체와의 인연 선택이 불가능하고 태아의 업장소멸이 가능하지 않아 출생 후의 불행과 고통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

중심의 타력태교법으로서 결혼전부터 태교가 시작되어 좋은 인연의 배우자와 태아영혼체와의 만남이 가능하고 또 태아의 업장소멸을 통해 미래의 불행을 소멸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음태교의 방법

첫째, 관세음보살님께 3배하고, 귀의·참회하면서 주·소·생·년·이름을 고합니다. 둘째, <관세음보살본문>을 1독하고 '불정 심판세음보살모다라니'를 5, 15, 32회 독송함

태담(胎談)태교를 병행합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아와의 대화를 통해 엄마·아빠의 사랑을 전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어머니의 거듭된 확신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함부로 낙태(墮胎) 하지 말아야 하고

5개월을 지켜야 관음태교를 하면서 가장 주의할 점은 살생, 도둑질, 거짓말, 사음, 음주(술 이외에 담배·마약 등)를 하지 말라는 재가불자의 5계(戒)를

관음태교인재 10만명을 양성하자 -

3,40년 후 초일류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 관음태교는 뛰어난 두뇌와 성현의 인품을 함께 갖춘 전인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가와 인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인재양성 태교법입니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인재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유대인족이 태교와 영유아교육 등 교육을 통해 세계적 인재를 많이 배출하여 오늘날



▲ 관음태교 교육개강식

▲ 관음태교로 출생한 아이를 소개하는 자매단원 콘서트

또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자녀들의 영유아교육에 몰심양면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비결이 태교와 영유아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유네스코(UNESCO)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유대인 태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수정을 해야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계획 임신법입니다.

2) 태담(胎談)태교

유대인들은 태아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부터 꾸준히 탈무드(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율법서)나 구약성서(토라)를 태아에게 들려줍니다.



▲ 관음태교 불교방송 방영 캡처

▲ 관음태교 체험사례발표

▲ 관음태교 교육장

니다.

셋째, 간절한 마음으로 태교발원을 합니다. 사전에 임신 계획을 잘 세워서 낙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낙태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고 낙태와 원결(原結)을 맺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고 모유를 먹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영불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으며, 인태 후에는

만드시 지킵니다. 10선(善)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전에 임신 계획을 잘 세워서 낙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낙태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고 낙태와 원결(原結)을 맺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고 모유를 먹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영불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미국의 정치·경제·문화예술계를 주름잡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관음태교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10만명 정도의 관음태교 인재를 양성한다면 향후 30~40년 후에는 지금의 유대인들 훨씬 능가하는 초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불자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관음태교인재 10만명 양성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